

한 동구(평택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약성서의 비전의 전형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약성서에서는 국가적 위기의 시기에 무수한 비전을 형성시켰다: 온 세계를 위한 축복의 중재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에 의한 거룩한 공동체의 비전, 세계의 중심에 대한 비전, 거룩한 백성-위대한 백성에 대한 비전 등, 이러한 비전들의 형성과 전승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¹⁾

한 동구 | 평택대

1. 문제의 제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한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야기하는 문제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 복합적으로 연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비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급변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런 빠른 변화에 대한 부적응에서 오는 위기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변화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²⁾

1) 이제까지 구약성서의 비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 회권, "성서해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기독교사상」 제 544호(2004년 4월), 156-174쪽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이 영미, "시온의 은유로 그려진 제 1아시아의 이상공동체의 비전," 「신학사상」 제 106호(1999년), 135-152 쪽; 「신학사상」 제 130호(2005년 가을)에서 "한국 교회의 아시아 비전"이라는 특집호를 다루었으나, 구체적으로 구약성서의 비전을 다루지는 않았다. 박 종수, "시편 74편에 나타난 시온 전승," 「구약논단」 제 9집(2000년 10월), 167-190쪽에서 시온 전승을; 김 상래,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새 성전의 정체성'," 「구약논단」 제 16집(2004년 4월), 215-244쪽에서 성전을 다루었으나, 비전에 대하여 다루지는 않았다.

2) 톰 사인, 「겨자씨 vs 맥세상」(현 문선 옮김), (고양: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2).

한국 교회는 2000년대까지 비교적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한국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작은 꿈들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교회 공동체는 이를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부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나, 이러한 성공이 한국교회 전체에 확산되어 지속할만한 추진력은 되지 못했다. 지도자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변화의 물결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응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탓에 한국 교회는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표류했을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미래의 비전은 한국 교회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성서의 다양한 비전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 이는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서의 비전을 통하여 사분 오염된 한국 교회를 하나로 묶어 성장의 가속을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정체성의 표현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이상과 비전을 제시했고,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지향점을 제공하여,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큰 희망이 된다.³⁾

본 논문에서는 구약성서의 다양한 비전 전승을 소개하며, 제한된 범위에서 역사적 배경과 전승의 발전 과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2. 비전 형성을 위한 역사적 배경

1) 물리적 힘의 거부와 거룩성에 의한 세계의 중심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사건에서 야훼 하나님을 의

3) 구약의 비전을 우리시대의 희망으로 전환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저서는 유르겐트 몰트만, 「희망의 신학」(전 경연 박봉량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이 신건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이다.

존하지 않고, 군사적 힘에 의존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리아-이스라엘(북 왕국) 연합국과 유다가 전쟁을 하는 동안(기원전 733-734년),⁴⁾ 이사야 예언자는 앗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의 도움을 굳게 의지할 것을 권면했다(사 7: 9).⁵⁾ 또 그는 물리적 힘에 의존한 동맹 정책을 비난했다(사 8: 9-10; 20: 1-6; 28: 14-22;⁶⁾ 30: 1-5; 31: 1-37).⁸⁾ 이러한 입장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이끌었다고 반성한다(사 9: 13-14).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며(사 9: 13),⁹⁾ 그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한다(사 27: 4).

이러한 반전 평화 사상은 예레미야에게서 극에 달한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환상에 빠진 시소 외교 정책을 경고했을 뿐 아니라(렘 4: 30; 13: 20-22),¹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했다(렘 20: 4; 27: 1ff.).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의 원조를 기대하며 항전하다 결국 궁극적 멸망을 맞이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함으로써,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당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살림과 죽음은 물리적 힘의 세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달려있다는 예언자들의 주장이 정신사적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반대로 끝까지 항쟁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잘못된 주장으로 간주되었다.¹¹⁾

4) 한 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서울: 도서출판 B&A, 2007), 25-43쪽.

5) 한 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 28-32쪽.

6) 사 28: 15, 18의 “죽음과의 계약은 애굽과의 동맹정책을 의미한다. 참조 J. Barthel, *Prophetenwort und Geschichte*(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19), (Tübingen: Mohr Siebeck, 1997), 317-326쪽.

7) 사 30: 1-5과 사 31: 1-3은 애굽이나 야훼나 하는 양자택일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는 애굽과의 동맹은 무모한 것임을 말한다. 참조 J. Barthel, *위글*, 411-414, 443-447쪽.

8)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강 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374-382쪽. 원제는 Raine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2* (ATDE 8/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9) 사 9장 7-20은 포로기적 상황이 반영된 본문이다.

10)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 537-547쪽.

11)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야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군사적 작전으로 인해 국가 멸망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호 1장 3-4절이다. 참조 H. W. Wolff, *Hosea* (BK 14/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6).

이러한 역사 인식과 함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포함한 경건한 신앙인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얻게 되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 6-8) 진정 영원한 것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이며, 야훼와 함께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성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세계사가 두 줄기의 흐름을 따라 흘러갔음을 보게 된다. 하나는 물리적 힘을 쫓는 허망한 흐름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쫓는 영원한 것임을 보게 되었다.

2)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국가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세계 속에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세계의 흐름은 강대국들의 군사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전에 강자였던 앗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지금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세계 무대의 주인공들은 물리적 힘에 의해 등장하고, 또 물리적 힘에 의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등장하는 페르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일정 기간 세계에 등장했다가, 그 임무가 다한 후에는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된다.¹²⁾

물리적 힘에 의한 세계 지배에 깊은 반성을 나타낸 자들이 있다. 먼저 온 세계는 야훼 하나님의 역사 계획과 통치 아래 놓여 있음을 인식한다. 이사야서에는 앗시리아를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해하였다. 이스라엘의 불 경건을 치기 위해 야훼 하나님께서 보낸 심판의 도구이다.

... ..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12) 후에 다니엘서에서 '네 제국론'으로 발전되었다. 참조 노만 포르퇴우스, 「다니엘(국제성서주석 23)」(박 철우 옮김), (서울: 韓國神學研究所, 1989), 쪽. 원제는 N. W. Porteous, *Das Buch Danie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
거리의 진흙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사 10: 5-6).¹³⁾

그러나 그가 주의 명령을 완수한 후에는, 그의 완악함으로 인해 야훼의
벌을 받아 망한다. 이처럼 온 세계는 야훼의 통치 안에 놓여 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
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사 10:
12)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세계 이해보다 더 전향된 입장을
보여준다. 그는 제 1차 포로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적국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이해의 배후에는 온
세계가 야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임의로 타민족을 적
대시하여, 아군과 적군으로 양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적도 하
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가 임의로 야훼의 축복으로부터 배제
시켜서는 안 된다.

... ..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
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도시의 평화를 구하고,
그 도시를 위해 야훼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도시의 평화로 인하
여 야훼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사역 렘 29: 5,
7)

3. 에스겔의 거룩한 공동체의 비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국토의 회복과 관련하여 예언자 에스겔은 환상
을 보았다. 그는 야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찾아오심으로 인해 성
전에 야훼의 영광이 가득한 환상으로 보았다(겔 43: 5). 그의 영광이 다
시 찾아올 때 큰 소리가 났으며, 그 소리는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와

13) 이방인의 왕을 야훼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한 사상은 렘 27장 5f.절과 사 45장 1f.절에서 볼 수
있다. 참조 O. Kaiser, Jesaja (ATD 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1), 223f.
쪽.

같았으며(겔 43: 2), 그 모습은 그밭 강에서 보았던 것과 같다고 하였다(겔 43: 3).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끌리어 회복된 성전에서 물(=생명수)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겔 47: 1-12). 성전에서 처음 천 척 정도 나갔을 때, 물이 발목까지 찼으며, 다시 천 척을 더 나갔을 때, 물이 무릎까지 차 올랐다. 다시 천 척을 더 나갔을 때, 물이 허리까지 찼으며, 다시 천 척을 더 나갔을 때, 물이 건너지 못할 만큼 가득 차 올랐다. 이제는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만큼 물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었다. 이 강물은 약속의 땅을 적시며, 마침내 아라바 바다로 흘러간다. 강 좌우편의 나무들은 물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주변이 푸르게 되고, 강과 바다의 물이 다시 살아나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게 된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었다.¹⁴⁾

이러한 비전은 에덴 동산에 접목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먼저 동산을 적시고, 또 거기에서 발원하는 네 개의 큰 강¹⁵⁾이 흘러나오게 하여 온 땅을 적시어, 온 세계를 기쁘고 풍요롭게 하셨다.¹⁶⁾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주고 세계를 풍요롭게 한다. 생기와 풍요를 주는 이 생명수는 결코 경제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이 생명수는 야훼의 거룩성에서 비롯된다.

4. 세계의 중심에 대한 비전

1) 시온에 대한 전승사적 고찰

시온(=예루살렘)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치적 삶의 중심이 되었다.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법궤가 옮겨옴으로써 종교적 삶

14) 김 고광, “교회 안에 흐르는 생명의 강물(겔 47: 1-12),” 「구약논단」 제 18집(2005. 8), 10-13쪽.
15) 첫째 강은 비손 강으로 하월라 온 땅을 들렀고; 둘째 강은 기혼 강으로 구스 온 땅을 들렀고; 셋째 강은 히대겔 강으로 잇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다(창 2: 11-13).
16) W. Zimmerli, *Ezekiel*(BK 2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1192-1193쪽. 그는 역 방향의 영향을 말하고 있다.

의 중심이 되었다(삼하 6장; 참조 왕상 8장). 그리고 기원전 701년 앗시리아의 침공 사건 때, 함락되지 않고 살아남음으로써 시온(=예루살렘)은 신의 도성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¹⁷⁾ 야훼 하나님은 시온에 그의 거처(=성전)를 마련하시고 거주하면서(사 8: 18; 시 48: 2-3; 74: 2; 76: 2; 132: 13-14; 135: 21), 시온 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시 48: 8),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다(시 48: 14).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국가의 멸망과 함께 시온과 성전이 초토화가 되었으며, 국가의 지도자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온은 그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이며, 돌아갈 귀향의 목표지였다(시 137: 6). 그러기에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께서 다시금 시온을 긍휼히 여기며, 시온으로 다시 찾아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였다.

이러한 여망은 포로기 전환기의 여러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 과거 시온은 얻어맞아 상처를 입을지라도,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었다(사 51: 17 - 52: 2; 렘 30: 12-17). 그러나 이제는 야훼께서 친히 찾아와(사 40: 9-11),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렘 30: 12-17). 시온은 이제 더 이상 야훼께 버림받은 자이거나 잊혀진 자가 아니다(사 49: 14-26). 이제 다시는 과거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사 54: 1-17). 미 4장 6절 - 5장 5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시온으로 불러모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장애자와 같이 약한 자들이라도 이들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하신다(미 4: 6-7; 참조 5: 1).¹⁸⁾ 마침내 시온은 세계의 중심으로, 비전의 대상이 되었다.

2)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시온(=예루살렘)의 비전

구약성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세계의 중심'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 2장 2-5절(=미 4: 1-5)과 사 60장 1-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¹⁹⁾ 구

17)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국 말엽에 사람들은 시온은 신의 도성이며, 성전 야훼 하나님의 전으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모두 거짓이라고 예언하였다(렘 7장).

18) 보다 상세한 주석은 M. Wischnowsky, *Tochter Zion*(WMANT 8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158-274쪽을 참조하라. 그는 포로기 전환기에 비로소 시온에 대한 긍정적 비전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약성서에서 말하는 세계의 중심은 힘의 논리가 아닌 바른 삶의 원리를 통한 세계의 변혁이다.

(1) 이사야 60장 1-3절

사 60장 1-3절에서 시온은 세계의 중심으로 묘사되었다. 사 60장 3절에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 몰려올 것을 말하며, 이어서 사 60장 4-9절에서는 시온을 향한 행렬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한다.²⁰⁾

이사야 60장 1-3절은 이사야 60장 전체의 서론 구실을 하며,²¹⁾ 이 서론은 두 명령으로 시작하여 이 명령에 대한 세 가지의 이유 절이 동반된다.²²⁾

사 60장 1-3절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네 빛이 이르렀으며

야훼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2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있으며

먹구름이 만민을 가렸을지라도,

네 위에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3 (이제) 나라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며,

왕들이 네게 임한 광명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19) '세계의 중심'의 표상은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 보여준 사상이며 그 의미도 다양하다. 중국의 중화사상(中華思想)이나 일본의 대동아 사상은 군사적, 또는 경제적 힘의 우위를 통하여 세계의 지배를 주장한다.

20) ①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몰려오고(사 60: 4b), ② 낙타행상들의 행렬이 몰려오고(사 60: 5-6), ③ 가축무리들의 행렬이 몰려오고(사 60: 7), ④ 선박의 행렬이 몰려오는 광경을 묘사한다(사 60: 8-9).

21) 사 60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된다. 첫째 부분(1-9절)은 시온의 영광과 시온을 향한 영화스러운 행렬을 노래하며, 둘째 부분(10-22절)은 새로운 구원의 상태(17-22절)를 노래한다. 첫째 부분에서 시온의 영광을 노래한 서론(사 60: 1-3)과 이 영광을 뒷받침할 후속조치로 시온을 향한 영화로운 행렬의 노래(사 60: 4-9절)가 연결된다.

22) 두 명령(1a절) - 세 이유절 ① 야훼의 영광이 임함(1b절), ② 어둠이 덮인 세계(2절), ③ 시온을 향한 행렬(3절).

① 시온의 영광(사 60: 1)

예언자는 야훼의 영광이 시온을 향해 가득 찬 세계를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온 세계에 높이 빛낼 것을 외친다: 일어나라(קוּמִי/쿠미), 그리고 빛을 발하라(נִאֲרָץ/오리). 야훼의 영으로 세계가 새로이 형성되었으며, 그 안에 야훼의 영광이 가득하며, 새 기운이 충만하다.

“일어나라!”라는 명령은 “넘어짐”, “쓰러짐”, 혹은 “파멸 가운데 앉아 있음”의 반대 개념으로(참조 애가 1: 1),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²³⁾ 야훼 하나님은 새 역사 창조로 그의 백성을 초청하여, 함께 새 역사를 이룩하기를 원하신다.

이사야서에서 빛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사 42: 6; 49: 6). 야훼 하나님은 그의 종에게 야훼 하나님의 ‘빛’을 온 세계에 전할 사명을 부여한다. 그는 야훼의 법을 일깨워 사람들에게 참 인생의 길을 제시하며, 삶의 바른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역사는 야훼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시온은 야훼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 야훼의 영광은 창조적 권능 속(시 104편)에,²⁴⁾ (바벨론으로부터)해방의 새로운 (출애굽의)역사 가운데(사 35: 1-5; 40: 3-4), 세계의 만민들이 따라야 하는 삶의 도와 말씀 속(시 138: 1-5)에, 야훼의 긍휼과 자비의 모습 속(사 54: 1-10; 참조 삼상 4: 19-22)에 나타난다.

② 세계는 아직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사 60: 2)

야훼의 영광이 시온에 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언자가 바라본 세계는 아직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 다만 시온만이 야훼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

예언자는 두 개의 세계를 바라본다. 하나는 눈앞에 놓인 암담한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세계이다. 예언자는 만물이 새롭게 변하는 모습 속에서 온 땅에 가득한 야훼의 영광과 그의 손길과 권능을 느낀다.

23) 히브리어 קוּמִי(쿰/일어나다; קוּמִי 쿠미/일어나라)은 새 일을 시작할 때 흔히 사용하는 동사이다.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갈 것을 명령한다(참조 사 52: 1-2).

24) 빛을 입으시며/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③ 시온을 향한 행렬-세계가 몰려온다(사 60: 3)

세계의 각 나라들이 시온에서 발하는 빛을 보고 그리로 몰려온다. 이러한 광경은 시온이 온 세계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바벨론에 의해 흑독한 수치와 치욕을 겪은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의 자존을 넘어 세계의 으뜸과 중심이 되었다. 시온(=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으로, 온 세계가 이리로 몰려오는 환상은 구약성서 여러 곳에서 묘사한다(사 49: 8-23; 60: 4-9²⁵).

(2) 이사야 2장 1-4절

세계가 시온을 향해 몰려오는 광경은 사 2장 1-4절(참조 미 4: 1-4)에서도 보도한다:

2 마지막 때에
야훼의 성전이, 시온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어나니,
모든 민족들이 몰밀듯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3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야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야훼께서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 ..”(사 2장 2-4절)

25) 이러한 행렬은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으로 쫓겨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향-모티브에서 발전되었을 알 수 있다(사 60: 4b). 귀향과 함께 온 세계의 재물과 보화가 넘쳐난다(사 60: 5-6; 참조 왕상 10: 22; 사 23: 2). 이와 함께 야훼를 향한 찬송이 넘쳐나며(사 60: 5-6; 참조 왕상 10: 22; 사 23: 2), 성전이 영화롭게 되며(사 60: 7; 참조 사 21: 13-17) 그리고 시온이 영화롭게 된다(사 60: 8-9).

사 2장 2-4절에서는 시온을 향한 행렬의 동기를 사 60장 1-3절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그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그의 길’을 ‘율법’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다시 설명한다. 이는 평화를 이루는 길이며, 바른 삶의 도이다. 시온에서 바른 삶의 도가 선포되기에 온 세계는 시온을 주목하며, 또 시온을 향해 그 길을 배우기 위해 나아간다.

(3) 중간 종합

진정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길은 물리적 힘에 의하지 않고, 야훼께서 제시하는 바른 인생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스라엘의 비전은 물리적 힘을 토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른 가치를 지향한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가치 중심의 삶을 추구하면서, 세계의 가치관의 변혁을 추구하였고, 그의 비전을 온 세계에 통용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의 중심이기를 원했다.

5. 두 비전의 합류: 거룩성을 지향한 역사

구약성서의 오경에는 인류의 역사를 웅대하게 그려주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의 형성, 이스라엘의 태동, 그리고 마침내 시내 산(=시온)에서 성전이 건립됨으로 완성된다.

제사장 문서에서는 거룩성의 정도에 따라 역사를 재편성하고 있다. 가장 먼저 창조의 역사를 묘사한다. 동심원의 가장 외곽에 우주의 차원을 위치시켰다. 창조를 7일의 도식 속에 체계화시켰으며, 개별 창조물들 사이에는 엄격한 위상(Hierarchie)이 부여되었다. 창조 역사는 빛의 창조를 통하여 시작한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점에서 빛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과정은 안식으로 끝맺고 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인간이 그 날을 기억함으로 창조의 역사를 항상 보존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홍수 이후 노아의 시대를 묘사한다. 동심원의 안쪽에 세계의

차원을 자리잡게 했다. 피의 규정을 통하여 공동체 내부는 물론 공동체 외부로부터 오는 일체의 폭력과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창조에서 부여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할 수 있게 했다. 인간의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위상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대변하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영원한 계약을 세움으로써 계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위상을 보존시켰다.

그리고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즉 셈과 함과 야벳은 각기 떨어져 나가 세계를 이루었으며, 동심원은 점차 좁아져 셈족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차원으로 넘어가 아브라함의 시대를 묘사한다. 창 17장은 시내 산 계약 이전 세 번째 계약으로 여러 가지를 약속한다.²⁶⁾ 이 약속들은 할례를 통하여 계승된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시대, 즉 시내 산 체류의 시대를 묘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머물 것을 말씀하신다. 동심원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건이 놓여 있고, 이것은 후에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었던 '만남의 장막'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²⁷⁾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출 29: 4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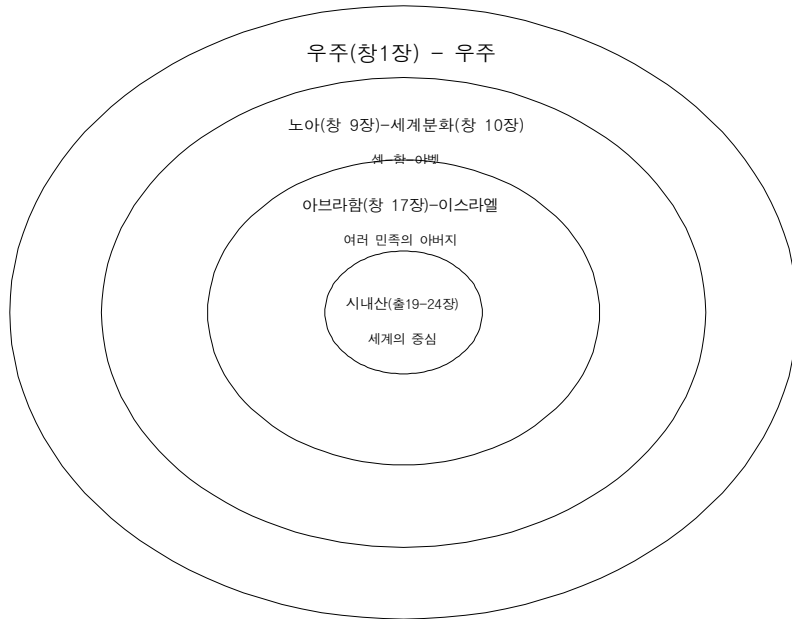
구약성서에서 추구하는 세계의 중심은 물리적 힘에 의한 세계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룩성과 바른 삶의 길을 전파하는 진리의 전당으로서의 중심을 말한다. 국가의 멸망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관과 역사관을 수립한 제사장들은 거룩성의 정도에 따라 세계

26) 먼저 하나님은 2절에서는 '자손의 증대'를, 8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자손'의 출생을 약속하였다.

27) 모세 시대에는 제사장 문서로 이루어진 계약의 기록은 없다. 다만 계약의 공식만 있다. 또한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만남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는 표현은 제 2성전이 건립된 이후 이를 상징하는 후대의 표현이다.

를 재편성하였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즉, 거룩성의 근원이 있다.

(그림)



태초에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모든 창조의 작품들을 7일로 짜여진 도식 속에서 완성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시간의 질서를 이루셨다. 역사는 네 단계로 나누어지며(창조 - 노아의 때 - 아브라함의 때 - 시내 산 계시), 그 중심에 시내 산 계시가 놓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었다.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었다. 혼돈과 부정에서 질서를 얻고자 했으며, 또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6. 제사장 중심의 세계관

세계의 중심에 대한 사상은 계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소 변형되어 나타난다. 세계의 중심에 제사장 중심의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 동심원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모세의 시대, 즉 시내 산 체류의 시대를 보다 상세히 묘사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사장이 놓여 있음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제사장 중심의 세계관은 이미 에스겔의 비전에서부터 그 싹이 나타난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국토의 중앙에 성전이 놓여 있으며, 남북으로 각각 여섯 지파가 배치되었다. 성전에는 제사장이 중심에 놓이고, 그 외곽에 레위인들이 위치한다.²⁸⁾

이러한 제사장 중심의 세계관은 민수기에서 더욱 발전한다. 민 1 - 4장에는 인구 조사, 진영의 조직, 회막에서 레위인의 의무들이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거룩한 질서를 드러내 주며, 그 진영의 중심에는 회막이 있고, 그 주위에는 레위 지파와 그 밖의 다른 지파들이 그들 자체의 거룩함 정도에 따라 둥글게 배열되었다. 민 2장 1-34절에서는 진영의 배열과 행군 서열을 서술한다. 동쪽, 즉 회막 입구에 유다를 배치하고, 각 방향으로 세 지파씩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돌아가며 배치시켰다. 그리고 진영의 중앙에 레위인들이 위치한다(민 2: 17). 이는 행군의 서열과 일치한다.²⁹⁾

에스겔에서는 민수기와는 달리 레위인들의 지위와 역할이 보다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성전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된 협력 관계를 나타낸 시대적 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사장 중심의 세계관은 역대기에서 더욱 발전된다. 대상 1 - 9장에는 장황한 족보가 소개된다. 먼저 남쪽 지파(유다와 시므온)의 족보가 소개되고, 다음에 동쪽 지파들(루우벤, 갓, 므나세 반지파)이 소개

28) K. Koch, *Die Profeten II* (Urban-Taschenbücher 281),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1978), 119-121쪽.

29) 민 1장 5-15절과 비교하여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은 일치하나, 유다 지파가 목록의 선두, 즉 중심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겔 47장 13절 - 48장 29절에 있는 땅 분배의 모습과 같다.

되고 그리고 중심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족보가 소개되며, 다음에 북쪽 지파(잇사갈, 단, 납달리)가 소개되며, 마지막으로 서쪽 대신에 중앙에 자리한 지파들(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잇셀, 베냐민)이 소개된다. 여기에서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나타난다.

7. 부록: 신명기의 역사의 기원

이와는 달리 신명기에서는 역사의 시작을 호렙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역사를 말한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출발점을 호렙 산³⁰⁾으로 삼았다(신 1: 2).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한 출발 명령에서 보여준 1인칭 복수 ‘우리의 하나님’을 통하여 화자와 백성 모두를 ‘하나님 앞에’(Coram Deo) 세우게 되며, 또 ‘우리에게’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체험한 공동의 경험을 현재화시켜 준다. 행군은 호렙에서 시작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한다. 호렙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지리적 근거가 아니라, 신학적 이유에서이다. 땅 정복을 향해 출발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호렙에 서야 하며, 야훼께(말씀을)들어야 한다.³¹⁾ 그러나 그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의 기원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에 찾으려는 정신사적 노력의 일환이다. 호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기도 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영적)교제를 나눈 곳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자신의 영적 출발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었다. 이러한 이해는 종래의 일방적인 영토 사상에 대한 반성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적 과제가 국제 무대에서 평화의 전파자로 설정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소국이 항상 겪어야 했던 정복당함과 지배당함의 운명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이 할 수 없는 국제 무대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30) 신명기에서는 시내 산 대신에 호렙 산을 사용하였다.

31) 야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말씀하시고(신 1: 6 4: 10. 15), 계약을 체결하셨대신 5: 2 28: 69).

8. 거룩한 백성 - 위대한 민족

1) '거룩한 백성'과 '위대한 나라'의 전승사적 고찰

국가나 민족을 히브리어 **אֱמ**(암/백성, 민족)이나 **אֶרֶץ**(고이/나라, 족속)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파 공동체를 형성한 이래로 사용하였다.

단순한 구성원을 지칭하는 표현을 넘어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기원전 8-7세기의 신명기 개혁 운동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과 구별하여 **אֱמ קָדְשׁ**(암 카도쉬/거룩한 백성)이라 하였다(신 7: 6; 참조 신 14: 21; 26: 19; 28: 9). 신명기 개혁 운동가들은 야훼의 소속성을 통해 민족 전체의 연대 의식을 강화시키고, 적과의 분명한 구별을 통하여 불굴의 저항 정신을 높이고자 했다. '거룩한 백성'이란 적에게 굴복하지 않은 야훼 공동체의 순수성의 주장이며, 하나된 공동체의 연대 의식의 표현이며, 야훼의 권능을 굳게 신뢰한(참조 사 7: 9), 신실한 신앙 공동체의 표현이다.

이러한 전승은 두 가지 갈래로 발전하였다. 한편으로 거룩성의 강조로 다른 한편으로 위대성의 강조로 발전하였다.

2) 거룩한 백성 -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전승은 포로 후기의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과 연결되어,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사야 62장 12절에서 시온(=예루살렘)을 **אֱמ קָדְשׁ**(암 하코데쉬/거룩한 백성)이라 부른다. 그것은 **אֱמֵי יְהוָה**(거울레 야훼/야훼에 의해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이다.³²⁾ 거룩한 백성은 야훼의 정의와 영광을 대신 실현시킬 자들이다. 여기에서 정의란 '자신의 수고로 얻은 양식을 적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하며(사 62: 8-9; 65: 21-22), 영광이란 이러한 정의의 실현을 통해 국제 무대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자로, 또 경제 정의를 조성하는 자로 명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백성을 이사야 61장 6절에서는 **אֱמֵי יְהוָה**(코하네 야훼/야훼의 제사장)으로 또한 **אֱמֵי יְהוָה**(머샤러테 엘로헤누/우리 하나님

32) 이러한 점에서 신 7장 6절의 **אֱמ קָדְשׁ**(암 카도쉬/거룩한 백성)의 개념과 유사하다.

의 봉사자)라 불렀다. 이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이다. 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억눌린 자, 마음이 찢긴 자, 포로,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자이며, 국제적으로는 야훼께서 세계를 향해 베풀어야 할 구원의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야훼의 제사장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열방을 섬기는 민족이며 나라이다. 이제 거룩한 백성은 이방과 구별되는 한 표식을 넘어 세계를 섬기는 표식이다.

사 62장과 사 61장의 이념이 출 19장 6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이스라엘을 **קְדוֹשׁ יְהוָה**(마르레케트 코하님/제사장의 왕국)이며 **אֶרֶץ קְדוֹשָׁה**(고이 카도쉬/거룩한 나라)로 불렀다(출 19: 6). 이는 야훼의 말씀과 그의 계약의 준수를 통하여 실현된다(출 19: 5). 세계의 중심은 물리적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바른 삶의 원리인 야훼의 말씀을 통하여 이룩된다.

3) 거룩한 남은 자의 공동체

‘거룩한 백성’의 전승 가운데 또 다른 독특한 사상은 ‘거룩한 남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구약성서의 여러 본문에서 남은 자들의 공동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 중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여기에 속하는 자들을 거룩한 자들, 즉 성도라 불렀다(사 4: 2-6; 6: 1-13). 이러한 사상은 포로 후기에 일반화되었던 ‘남은 자’의 사상과 ‘거룩한 백성’의 전승이 함께 합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사야의 ‘거룩한 남은 자들의 공동체’는 사 62장 12절의 **בְּרִית קְדוֹשָׁה** (암 하코데쉬/거룩한 백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심판을 통해 정화된 거룩한 자, 즉 성도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사상은 포로 후기 공동체의 자기 이해의 한 표상임에 틀림이 없다.³³⁾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대부분은 소멸되고, 소수의 살아 남은 자들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무엇보다 심판을 통해 정화된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에 근거한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한다.

4) 강한 민족/나라 - 위대한 민족/나라

33) J. Hausmann, *Israel's Rest* (BWANT 124), (Stuttgart/Berlin/Köln/Mainz: Verlag W. Kohlhammer, 1987), 220-224쪽.

‘거룩한 백성’의 전승은 군사적 관점에서 계속 발전되었다. 사 5장에서 지파 공동체의 일원을 **אֱמִי**(암/백성)이라 불렀다(사 5: 2, 9, 11, 13, 14, 18), 특히 11절에서는 이들을 아훼의 군대라 불렀다. 군사적 관점에서의 용례는 이후 문헌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창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גֹּיִם גְּדוֹלִים**(고이 가돌/큰 민족)³⁴⁾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유랑 중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새로이 큰 민족(**גֹּיִם גְּדוֹלִים**)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출 32: 10=민 14: 12=신 9: 14). 현 본문은 나그네 살이를 하는 약소국의 사람들에게 강대국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약속의 말씀이다.

신 26장 5절은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고백하면서 소수의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 나그네 살이를 하였으나, 거기에서 **גֹּיִם גְּדוֹלִים וְעַזֵּי כֹחַ**(러고이 가돌 이춤 바랍/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고 말한다. 현 본문은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놓인 약소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약소국의 운명에서 벗어나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새 시대의 과제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켜 현실 극복의 용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정탐꾼들은 그 땅의 사람들이 **גֹּיִם עֲזִזִּים**(암 가돌/강한 민족 신 1: 28; 참조 민 14, 31)이었으나,³⁵⁾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물리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역사 서술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극복했던 포로기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신 4장 5-8절에서는 위대한 국가에 대하여 새로이 해석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명하면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말하게 한다. 이스라엘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곳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위대성은 지혜로서의 율법 속에서 발견하게 됨을 말한다.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모신 민족이기에 위

34) 참조 창 17: 20; 18: 18; 21: 18(21: 13); (35: 11); 46: 3; (48: 19).

35) 참조 신 2: 10; 2: 21; 9: 2; 계속하여 **גֹּיִם גְּדוֹלִים**(고이 가돌/강한 나라) - 신 11: 23; 4: 38.

대하다.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율법과 규례를 가졌기 때문에 위대하다(신 4: 5-8).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위대한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 곁에 있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민족을 가리킨다(신 4: 5-8).

9. 요약과 결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의 추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으로 발전되어 민족의 희망이 되었다. 특별히 국가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더욱 더 비전의 중요성이 커져 갔으며, 민족의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비전은 초기 주변 강대국과 맞서기 위해 물리적 측면이 다소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힘으로 시대의 위기나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뜻과도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세계를 향한 '축복의 중재자'로 자리 매김 하였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적국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스라엘은 바른 삶의 태도의 변화 속에서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축복과 긍지가 된다.

또한 창세기의 족장사에서도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세계를 향한 축복의 중재자의 비전을 가졌다. 그들은 가치 표준(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실 것이며, 그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에 근거하여,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세계화시켰을 뿐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거대한 가족 공동체로 묶었다.

예언자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과 국토의 회복의 환상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의 비전을 보았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주고 세계를 풍요롭게 한다. 생기와 풍요를 주는 이 생명수는 야훼의 거룩성에서 비롯된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예언자는 눈앞에 놓인 암담한 현실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며, 야훼에 의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선포하였다.

초기에는 시온의 회복에 대한 비전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세계의 중심은 힘의 논리가 아닌 바른 삶의 원리를 통한 세계의 변혁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역사는 야훼의 창조적 권능과 세계의 만민들이 따라야 하는 바른 삶의 도에서 시작된다.

거룩성을 지향하는 역사와 세계의 중심을 지향하는 역사는 오경에서 그리는 웅대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우주와 세계는 거룩성의 정도에 따라 재편성되었으며,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만남', 즉 거룩성을 근원에 두었다.

한편 적의 침공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아군과 적군의 강한 분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상이 나왔다. 거룩한 백성이란 야훼에 속한 백성으로 적과 구별되며 질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선전이였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점차 변경되어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지혜로운 나라로서의 위대한 나라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구약성서의 비전들은 야훼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룩성과 말씀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의 성장은 물론 세계 모든 민족들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온 세계 가족 공동체이자 거룩한 공동체를 지향했다.

10. 참고문헌

- 김 고광, "교회 안에 흐르는 생명의 강물(겔 47: 1-12)," 「구약논단」 제 18집(2005. 8), 10-13쪽.
- 김 상래,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새 성전의 정체성,'" 「구약논단」 제 16집(2004년 4월), 215-244쪽.
- 김 회권, "성서해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기독교사상」 제 544호(2004년 4월), 156-174쪽.
- 몰트만, 유르겐트, 「희망의 신학」(전 경연/박 봉량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이 신건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박 종수, "시편 74편에 나타난 시온 전승," 「구약논단」 제 9집(2000년 10월), 167-190쪽.
- 사인, 톰, 「겨자씨 vs 맥세상」(현 문선 옮김), (고양: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2).

- 알베르츠, 라이너, 「이스라엘 종교사 I」 (강 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원제는 Raine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2* (ATDE 8/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 이 영미, “시온의 은유로 그려진 제 1이사야의 이상 공동체의 비전,” 「신학사상」 제 106호(1999년), 135-152쪽.
- 포르퇴우스, 노만, 「다니엘(국제성서주석 23)」 (박 철우 옮김), (서울: 韓國神學研究所, 1989). 원제는 N. W. Porteous, *Das Buch Danie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 한 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B&A, 2007).
- Barthel, J., *Prophetenwort und Geschichte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19)*, (Tübingen: Mohr Siebeck, 1997).
- Hausmann, J., *Israels Rest* (BWANT 124), (Stuttgart/Berlin/Köln/Mainz: Verlag W. Kohlhammer, 1987).
- Kaiser, O., *Jesaja* (ATD 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1).
- Koch, K., *Die Profeten II* (Urban-Taschenbücher 281),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1978).
- Wischnowsky, M., *Tochter Zion* (WMANT 8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 Wolff, H. W., *Hosea* (BK 14/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6).
- Zimmerli, W., *Ezechiel* (BK 2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검색어

가족 공동체
 거룩성
 거룩한 백성
 비전
 생명수
 세계의 중심
 시온
 제사장의 나라
 축복의 중재자

투고일: 2008년 7월 1일
 심사일: 2008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5일

Identity of Israel and it's Vision

Dong-Gu Han,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Seeking a will of God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Israelite history as it developed as vision of the Israelite people and their national hope. Particularly the importance of 'vision' was well acknowledged when they experienced the severe crisis of the fall of their nation, and it was articulated as their national identity.

The present study will demonstrate the visions in the Old Testament as models for overcoming the crisis of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Methodologically it will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traditions, historically, from which the visions induced.

The early vision of Israel was of physical strength in order to meet strong neighbouring nations; though later was it admitted that it is impossible for Israel to be a central nation in the world or prevail over crisis by means of physical strength, of which means God does not approve.

Israel, on the other hand, began to identify itself as mediator of blessing. Prophet Jeremiah encouraged the people to pray on behalf of the enemies; this shift of the attitude of Israel could become a seed for

the blessing and comfort for many other nations.

In the patriarchal narratives of Genesis the ancestors of Israel had a vision that they would be mediators of blessing for the world. Based on the specific value of their own (i.e., those who treat them kindly will be blessed by God, and those who ignore them will be cursed by God), the blessing of YHWH became universal and all the nations could possibly be one as family.

Prophet Ezekiel could envisage a holy community when he saw a vision of Jerusalem and the Israelite land being restored, and of the water of life flowing from the temple. The water could spirit the people and enrich the world, and it does flow from the holy temple of YHWH.

Many leaders of Israel envisaged their nation standing up at the centre of the world. While the prophets could simultaneously see the gloomy reality before their eyes and the new world God presents, they proclaimed the coming of the new world by God.

At the beginning the restoration of Zion was what envisaged, but later, gradually, the 'chang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just life, not of physical strength, was being sought. A new history could possibly commence by the power of God and by the principle of just life everyone in the world ought to observe.

The history that means to achieve holiness and the history that means to take centrality of the world are merged together in the Pentateuch that envisages a sublime history of the humankind. Universe and world are rearranged in terms of holiness, 'the encounter with God' being the core of it.

Meanwhile, the idea of 'holy people' was introduced when strict segregation between enemies and own force was needed in the time of national crisis. The holy people could mean those belong to YHWH and are superior to the enemies in quality. However the idea was being changed to mean a nation serving the world as priest and a wise nation possessing the word of God.

What the Old Testament envisaged is a family-like community of the world where the development of Israel and also of all the nations was

encouraged simultaneously, based on the holiness flowing from God and his word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and, furthermore, to make known the principle of just life in the world, thu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Biblical world'.

Keywords

Vision
The centre of the world
Mediator of blessing
Family-like community
The water of life
The holy temple
Zion
The priestly nation
The holy people